신 광 섭 한국펄프몰드협회 회장

대형 급식소를 통한 계란소비 혁신을 꾀한다

▲ 계란소비 홍보에 앞장서는 신광섭 한국펄프몰드협회 회장

과거 플라스틱 난좌를 처음 국내에 보급하면서 계란유통업계에 변화를 가져왔던 업체가 40여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최근 대형급식소를 겨냥한 계란후라이기를 개발하면서 채란업계에 혁신을 꾀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본고는 동진MPTech㈜ 대표이며, 한국펄프몰드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광섭 회장을 만나 협회운영 및 계란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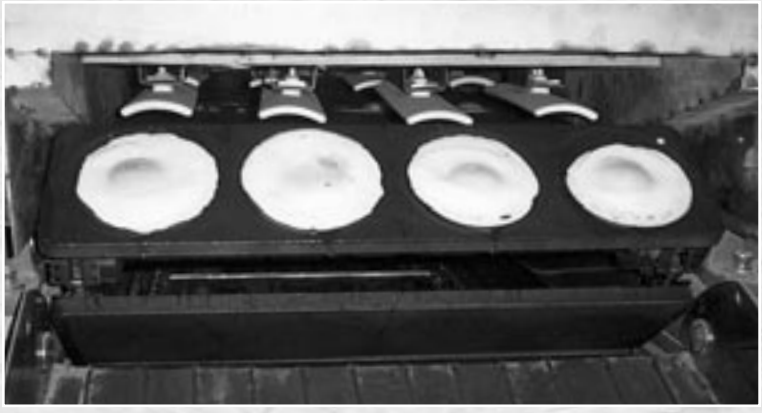
한국펄프몰드협회의 활동

한국펄프몰드협회(회장 신광섭)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농축산물의 포장재질이 종이나 펄프몰드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2003년 10월 창립 기념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양계업계에는 피엠텍, 그린엔바이론텍, 풍년, 에코스틱, 동진MPTech㈜ 등 종이난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포진하면서 국내 채란업계에 양질의 난좌를 공급하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산 난좌가 수입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는 30여개에 달하지만 정식 활동을 하는 회원사는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년 신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협회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난좌업계의 원동력 동진MPTech

동진MPTech은 지난 1963년 3월 플라스틱 성형기 전문업체인 동진기계공업사로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공성형기계를 이용해 플라스틱 난좌를 생산하면서 양계업계 유통분야에 큰 획을 그었다. 부친인 신동술 회장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도전 정신이 만든 산물이었다. 이후 동진MPTech은 한국중공업,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공사 등 굵직한 회사들과 협력을 체결하며 국내 산업의 기초와 발전을 다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각종 펄프몰드 포장용기는 물론 댐 등에서 사용하는 유압실린더, 대형선박 엔진의 정밀기능부품 등 전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분야를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신회장은 부친의 경영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업계에 뛰어들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2년여에 걸쳐 개발된 계란후라이기로 1시간에 1,200개의 계란을 후라이 할 수 있다.(출시를 앞두고 최종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다.)

중국제품에 맞서 품질로 승부한다

신광섭 회장은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난좌가 수입되면서 채란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만 중국산의 경우 질적인 면에서 국내 난좌를 능가할 수 없으며, 가격면에 있어서도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아 국내 난좌업계와는 경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진MPTech 등 난좌회사들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AI 등 질병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예방을 위해 1회용 종이난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플라스틱 난좌가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1회용 난좌사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할인마트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난좌에 담긴 계란은 비위생적이고 저가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협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선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회 임원들의 노력으로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란후라이기 개발로 소비에 큰 기대

펄프몰드협회는 국내 계란소비를 늘려 양계농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계란후라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학교, 병원, 시설 등 대형 식당에 설치할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계란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회장은 그 동안 학교나 대형 식당 등에서 계란후라이를 기피한 이유가 조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에 착수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기계는 과거 1,000개의 계란을 후라이 할 경우 3명이 4시간을 소요해야 하지만 이 기계는 1명으로 1시간에 1,2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해 대형 할인 매장에서 눈독을 드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회장은 2년여간의 기간에 걸쳐 개발된 계란후라이기는 침체 일로에 있는 계란소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채란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계란후라이기는 신회장이 몸담고 있는 동진MPTech(주)에서 개발에 참여, 제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양계협회, 정부 등의 협조를 받아 한국펄프몰드협회에서 보급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